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1구 맹골에 충진 이덕회의 정려가 있다. 이덕회의 자는 경렬이며 관향은 용인이다. 아버지는 첨정 벼슬을 지낸 이극인데 천안군 입장면 산정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성격이 쾌활하였고 20세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전관이 되어 선조대왕을 모시고 의주에 까지 호종하였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왜적의 동태를 정탐하여 왕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왕이 기특하게 여겼다.

이듬해 계사년(1593년)에는 홍양의 통판에 임명되어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정비하여 왜적의 침략에 대비하였으며 크게 업적을 나타내었다.

정유년(1597)에 남원부의 판관으로 임명되어 불과 2개월만에 왜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이때에 남원성에는 조선의 관군이 2,000명, 명나라 장수 양원이 거느린 명군 3,000명, 남원성내의 백성 5,000명이 협력하여 왜장 소서행장이 거느린 적군 10만 대병을 막아내고 있었다. 음력 7월 28일부터 남원성을 포위한 왜적을 대항하던 명장 양원은 형세가 불리해 지자 8월 16일 아침에 장군복을 벗어버리고 군졸복으로 변장한 다음 남원성을 버리고 탈출하여 도망하였다. 이에 위급함을 깨달은 이덕회는 포위망을 뚫고 남원성을 나와서 교룡산성으로 올라가, 성안에 있는 무기고와 화약고 및 군량미 창고에 불을 지르고 돌아와서 남원성을 사수하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최후까지 백병전으로 항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때에 군, 관, 민 모두 1만명이 전사하여 남원에는 만인의총이 남아 있다. 때는 1597년 8월 16일이다.

사람에게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아무리 굳은 신념이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고는 가치가 발휘되지 않는다. 죽음을 걸고라도 실행한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서 그 신념이 생명을 띠는 것이라고 믿는다.